

광주·담양·화순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 키운다

광주관광공사, 3개 지역 연계 브랜드 ‘무등포레스트’ 추진
숙박·식품·체험 30여곳 선정… 상품개발~판로까지 지원

광주관광공사가 지역 관광기업 간 협업을 통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무등포레스트 상품화 참여기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남부권 전체로 분산하고, 광역단위의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동구·북구·서구 및 화순·담양 소재 숙박·식품·체험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단

순히 스쳐 지나가는 ‘단발성 방문’에 그쳤던 관광 형태에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며 깊이 있게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상품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주·담양·화순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결하고 ‘무등포레스트’ 공동 브랜드를 중심으로 관광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별 기업의 상품 개발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기업의 역량을 결합해 관광객이 머물고 경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방향과 참여기업 모집·선정 절차, 기업 간 협업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안내하고, 최신 관광 트렌드와 AI 활용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기업별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사는 참여기업을 30개사 내외로 선정해 OTA·여행사 연계 프로모션, 전문 콘텐츠 제작, 기업 간 협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상품 개발과 판매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오는 23일까지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관광은 지역의 기업이 만들고, 공공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무등포레스트를 통해 지역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고, 지역 대표 관광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무등포레스트 상품화 참여기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챔피언스시티·상무병원, 입주민 안전 ‘맞손’
입주민 건강증진·응급안전 체계 구축 의료협력 MOU 체결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개발 중인 ‘올 뉴 챔피언스시티’가 광주상무병원과 손잡고 입주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에 위한 의료·응급안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챔피언스시티북향개발에 이엠씨(대표이사 유기석)와 상무병원(대표원장 신상규)은 12일 상무병원에서 ‘챔피언스시티 입주민 응급안전·웰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챔피언스시티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향후 단지 내 응급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단순한 의료기관 제휴를 넘어 단지 내 전문 응급인력과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한 응급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상무병원은 응급대응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고, 응급대응 매뉴얼 감사와 응급실 이용절차 안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챔피언스시티북향개발에이엠씨 관계자는 “주거공간에서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입주민의 일상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상무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응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무병원 관계자는 “지난 26년간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성장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회환원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챔피언스시티 입주민의 건강관리와 응급안전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응급대응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챔피언스시티는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광주 최초의 디벨로퍼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약 29만8천㎡ 부지에 대규모 주거시설과 더현대 광주, 특급호텔, 업무·문화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개발 본격화를 알리는 첫 주거단지인 ‘챔피언스시티 1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소방 광주119상황실, 신속대응 고압감전환자 구조

변전기 수리작업 중 사고…소방헬기 신속 이송 생명 구해

전남광주통합특활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본부 119종합상황실이 신속한 병원 선점과 소방헬기 이송으로 고압전기 감전 화상환자의 목숨을 지켜냈다.

광주권역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55분께 화순군 면 농장에서 변전기 수리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종합상황실은 전남권역본부장용 소방서 장령구급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2만2000V 고압 전기에 감전된 환자는 얼굴과 가슴 등에 2도이상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고압 감

전사고의 특성상 내부 장기 손상 및 광범위한 화상 치료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만큼 신속한 이송이 관건이었다.

119종합상황실은 곧바로 화상치료 전문병원을 수소문한 결과, 서울에 위치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육로 이송 시 예상되는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이송을 결정했고, 화순에서 광주로 구급차량으로 이송한 뒤 광주에서 서울로 소방헬기로 이송하는 일사불란한 이송체계를 가동해 환자가 골든타임 내 전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활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본부 119종합상황실이 신속한 병원 선점과 소방헬기 이송으로 고압전기 감전 화상환자의 목숨을 지켜냈다.

채덕현 광주권역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이번 고압감전 화상사고는 초기 대응과 신속한 전문병원 이송이 생존율을 좌우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앞

으로도 인접지역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상의 구급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예술 매개 창작’ 꿈의 예술단 연합캠프 성료

특활시 동구·광산구·화순 참여 문예교육 70명 참가 결과물 완성·유대 관계 형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 이하 ‘전당재단’)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예술극장 아틀리에에서 ‘2026 꿈의 예술단 연합캠프-상상블럭스’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이번 연합 캠프에는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동구와 광산구, 화순 등 3개 꿈의 예술단 단원 50명과 관계자들 포함 총 70여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개 지역 꿈의 예술단 단원들은 이번 ‘2026 꿈의 예술단 연합캠프-상상블럭스’ 연합캠프에서 예술을 매개로 친밀감을 높이고 새로운 유대 관계를 형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예술극장 아틀리에에서 ‘2026 꿈의 예술단 연합캠프-상상블럭스’를 진행했다.

했다. 단원들은 각 단체 예술감독들이 기획한 3개의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에서 접

게 접하는 물체를 직접 탐색하고 이를 신체 움직임, 이야기와 결합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했다. 나아가 서로의 생

각과 표현을 한데 모아 하나의 완성된 장면으로 발전시키는 깊이 있는 공동 창작을 경험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어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죽진단강원,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돌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ონსე (음력 7월 1일)

48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조심시킬 것
60년생 손을 함부로 쓰지 말라 화를 부르지
72년생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84년생 애정운은 하락세
96년생 스스로 화 불러들이니 경계방중 주의
51년생 지인의 병문안 후 안심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대상자는 반드시 내부에 있느니라
75년생 지인의 원조를 받아 호운을 맞이한다
87년생 누워서 침 뱉기에 비유할 만하다
99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두라
54년생 우선은 말 할 수 없으니 저주라
66년생 지인에게 실수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78년생 물이 깊은 곳이라야 큰 고기 모인다
90년생 뒷사람을 공격하면 허물을 면하겠다
57년생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길 것
69년생 모든 일이 귀하의 계획대로 된다
81년생 금전 앞세우면 남매를 볼 수 있다
93년생 이상의 문제에서 해결사 하지 말라

49년생 많은 욕심은 허탈감 초래 할 수 있다
61년생 나 라도 우선 빠져나오고 보라
73년생 발 밟고 나서야 비로서 성공할 수 있다
85년생 화성을 지르면서 임하더라도 소용 없다
97년생 오랜만에 시원함을 맞는다
52년생 귀하 것이 아니니 넘겨 주라
64년생 주시 때문에 순간적인 고통이 따르리라
76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88년생 남의 일보다 귀하의 일 신경쓰라
55년생 외출을 삼가라
67년생 잘못되고 정당하지 못한 처사 조심
79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력이 필요하다
91년생 주장이 강하면 손해 보는 날
58년생 애인과 이별의 암시가 있다
70년생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후련함이 보인다
82년생 단칼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94년생 말 실수가 우려된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부부 간 미묘한 갈등이 해소될 것
62년생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하라
74년생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싸움내지 마라
86년생 변화 계획 추진하면 미래가 밝다
98년생 이상의 유혹을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
53년생 베풀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이다
65년생 결혼한 편만 지체하고 판단하라
77년생 시비 구설 들어오지 마음을 비우자
89년생 고집만 내세우면 주변과 다툼이 있다
56년생 각별히 교통사고를 주의하라
68년생 초조해할 것 없다 곧 나아질 것
80년생 지인과 의견 일치기 되지 않는다
92년생 우정·사랑 사이 의견차 생길 것
59년생 주변을 둘러봐도 힘든 일만 기다린다
71년생 소원하던 일 이뤄지고 이익이 따른다
83년생 쉬운 일이라도 덤벼지 말고 생각하라
95년생 한 일이 많으나 성과나 이익이 없다